

대학생들의 읽기 토론 수업에서 블렌디드 러닝 활용의 효과

안미리*, 정동빈†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Ahn, Miri, & Jeong, Dong-Bin. (2010). The effects of a blended learning method in a college English reading and discussion class. *Modern English Education*, 11(3), 106-133.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blended learning method on students' achievement in an English reading and discussion class.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describ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blended learning method by a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15 college students from October to December, 2009.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seven students who used a web-based bulletin board in a blended learning setting, and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eight students who studied using face-to-face learning. Each group partook in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employing literature and newspaper articles as main tex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pre-reading activities using a web-based bulletin board had a positive effect on student speaking achievement. Result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provided useful insights in how to improve a blend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 light of texts, CMC tools, discussion questions and its effects on language abilities. In sum,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blended learning can be an effective pre-reading activity.

[blended learning/college English/reading learning/discussion/
블렌디드 기반 학습/대학영어/읽기 중심 학습/토론]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박경일(2003)은 국제 경쟁력 있는 학문의 영어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을 잘못된 영어교육의 탓이라고

* 제 1저자.

† 교신 저자.

진단하였다. 김지원(2006)도 잘못된 영어교육의 사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대학의 교양영어수업은 번역위주의 독해식 수업이 진행되어왔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원어민 강사가 이끄는 회화수업을 통해 학생의 가벼운 일상회화 실력은 늘어났지만, 말하기에 편중된 나머지 오늘날 신세대 대학생들은 읽기를 벅차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읽기를 번역 그 이상의 활동, 그리고 말하기 수준을 일상적 대화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문학작품과 영자신문을 활용하는 영어 읽기 말하기 지도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강시경, 정동빈, 2009; 김소은, 2009; 민예구, 2001; 임미경, 2009; 차은실, 2006; Long, 1997). 국내외 초 중등학교 영어교육현장에서는 문학작품과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읽기 및 말하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김소은, 2009; 임미경, 2009; 차은실, 2006). 그러나 현재 대학영어교육 현장에서 이런 문학적, 시사적 특성을 활용한 영어 읽기 교육의 효과성과 토론식 말하기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현장 실험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인다.

한편, 최근 많은 대학에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과 강의 저작 도구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이러닝(e-learning)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먼대면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교수자들이 이러닝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기술적 부담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에 기존의 먼대면 수업에 이러닝 요소를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임병빈, 박지민, 강문구(2009)는 다양한 CALL 매체를 사용한 영어수업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영어 유창성 및 학습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명관(2006)도 웹을 활용한 영어읽기수업이 대학생의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업성취도나 학습동기와 같이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고 한 나머지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기술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읽기와 말하기 기능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으나, 연구대상, 연구기간,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도구 적용이 상이함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치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블렌디드 러닝의 성과에 대한 영어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분야 연구가 아직 부족하고, 연구대상도 제한적이었다고 보인다. 정동빈, 강시경(2008)의 실험연구에서 발견했듯이, 한종임(2003)도 EFL 환경에서 비동시성 CMC의 효과적인 연구 방안과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필요성과 적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및 토론 수업에서 문학작품과 영자신문을 주 교재로 사용하고, 웹 게시판을 활용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수업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블렌디드 러닝이 면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읽기 및 말하기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웹 게시판을 활용한 토론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 질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웹 게시판 활용 블렌디드 러닝이 면대면 수업보다 읽기 성취도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2. 웹 게시판 활용 블렌디드 러닝이 면대면 수업보다 말하기 성취도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3. 웹 게시판 활용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블렌디드 러닝 적용

구성주의(constructivism)란 행동주의에 대비되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동주의자들은 아동은 세상에 백지 상태로 태어나 환경에 의한 자극-반응-강화에 의해 습관화, 조건화되어 언어를 습득한다고 믿는 반면, 구성주의자들은 학습자들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며, 이러한 배경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고 생각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Beatty, 2003).

Driscoll(2002)에 의하면 구성주의에는 인지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가 있다. 인지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주의는 Vygotsky(1987)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자는 혼자만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언어에는 기능적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현되는 언어의 기능을 학습해야 한다. 이때 교사나 우수한 또래 집단은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단계적인 지도(scaffolding)를 마련해준다. 단계적 지도를 통해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까지 학습자는 발달하게 된다. Vygotsky(1987)에 따르면, 학습자는 교사나 우수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실제적 발달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도움을 통해서 학습자가 어느 정도까지 실제적 발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 결정해야 한다. 교사 혹은 우수한 또래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을 잠재적 발달수준이라고 하며,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수준간의 차이를 ‘근접발달영역’이라고 일컫는다. 이 영역은 학습과 인지발달이 일어나는 지대로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구성주의 이론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학습 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중 하나가 웹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학습이다. 면대면 학습 환경과는 달리 웹 기반 협력학습은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웹 기반 협력학습 환경 중에서 웹 게시판은 비동시적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Asynchronous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도구로써 학습과정에 대한 모든 결과물이 문자로 남게 되어 학습자의 학습과정 분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별 학습자의 참여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cDonald, 2003).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웹 게시판에 올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찾으며, 성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과 활발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Pena-Shaff & Nichollas, 2004). 그러므로 이번 실험연구에서 웹 기반 협력학습 중 웹 게시판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하고자 한다.

2. 블렌디드 러닝의 정의와 장점

블렌디드 러닝이란 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학습 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적용함으로써 학습목표성취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Singh & Reed, 2001). 현재 블렌디드 러닝은 대학에서 널리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교수-학습 환경이며, 대개 두 가지 이상의 학습 전략을 혼합하여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는 전략적 학습과정으로 간주된다. 오프라인 학습과 온라인 학습의 혼합,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김동일, 이해정, 손지영, 2005; Bielawski & Metcalf, 2002; Graham, 2006; Graham, Allen & Ure, 2003). 본 연구에서 블렌디드 러닝이란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의 혼합을 강조하여 표현한 용어이다.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은 교사 중심의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박은숙, 2008), 웹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활동 제공이 가능하여(Rosenberg, 2001), 기존의 학습 환경을 개선시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김동일 등, 2005; Driscoll, 2002)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닝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닝에서는 동기가 약하고 수동적 학습 자세를 지닌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발이 힘들뿐만 아니라 (Collison, Elbaum, Haavind, & Tinker, 2000), 온라인상으로는 교수자-학습자간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교수자에게 코스와 콘텐츠 개발 및 학생들에게 주는 피드백 제공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이혜정, 이성혜, 2007). 따라서 교수자의 상당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개별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가능한 블렌디드 러닝이 대학교육에 도입되어 그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3. 블렌디드 러닝 활용 SLA에 관한 선행연구

많은 연구자들은, Bleimann(2004)과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면대면 수업방식의 장점과 오디오, 비디오, 동영상, 웹사이트와 같은 다양한 학습 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이러닝의 장점들이 결합되어 생성된 블렌디드 러닝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다양한 교육목표를 달성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최근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블렌디드 러닝에서의 학습효과가 면대면 수업 혹은 온라인 수업에 비해 높다는 비교 연구들이다. 블렌디드 러닝의 읽기 효과 연구들은 말하기 효과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먼저 읽기 효과연구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동빈, 김혜경(2009)은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읽기 전 후 토론활동을 각각 문자 채팅과 웹 게시판을 활용하여 수행한 실험반 학습자들이 구두 토론으로 읽기 전 후 활동을 수행한 통제반에 비해 읽기 성취도가 향상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연구결과 실험반이 통제반에 비해 읽기 성취도에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유사하게, 조숙, 정동빈(2008, 2009)도 대학 교양 영어 수업에서 이메일과 채팅을 활용한 과제 학습이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면대면 수업방식보다 CMC를 활용한 학습자들의 읽기와 말하기 능력 모두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영자신문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읽기 학습이 읽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양윤혜, 2008). Thompson(2003)에 의하면, 블렌디드 러닝의 학습효과가 높은 이유가 학습자들이 가상학습 환경(Virtual Learning Environment)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이라고 한다.

블렌디드 러닝의 말하기 효과 연구들은 다양한 CMC 매체를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영상과 음성을 매개로 한 CMC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에게 심리적 편안함을 주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Yamaha, 2009). 또한, 쓰기의 특징을 지닌 비동시성 CMC인 토론 게시판을 매개로 한 불어 수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Batardière & Jeanneau, 2005). 이

외에도 온라인 채팅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말하기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Bañados, 2006; Lee & Chong, 2008; Payne & Ross, 2005).

둘째,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홈페이지 혹은 사이버 커뮤니티, 프로젝트 학습법, 과제 중심의 학습법과 같은 다양한 학습 방식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방영주, 2006; 이영민, 2006; 이병천, 2004; 정동빈, 강시경, 2008; Thomas & MacGregor, 2005). 예를 들면, 방영주(2006)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과 일반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을 비교 한 결과, 실험반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 검사와 수업 만족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한다. 이영민(2006)은 프로젝트 학습법을 대학교육에 실천한 결과, 학습자의 90%이상이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Thomas와 MacGregor(2005)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협동학습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의 참여 빈도와 학업성취도가 비례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과제 중심의 학습법을 비 실시간 CMC 협동 학습에 활용한 이병천(2004)은 언어 수준이 낮은 단계의 초등학생들의 영어 문장 이해력에 블렌디드 러닝이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초등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정동빈, 강시경, 2008) 사이버 커뮤니티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방식이 면대면 보다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블렌디드 러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민정, 김혜원, 2006; 김지영, 2007; 박성익, 이상은, 송지은, 2007; 박은숙, 2008; 이혜정, 홍영일, 손지영, 2007; Gülbahar & Madran, 2009; Lim, Morris, & Kupritz, 2007). 김지영(2007)은 웹 게시판을 활용한 대학영어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시도했으며, 내적 동기, 학습자간 상호작용,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및 학습자 참여가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업 만족도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서 박은숙(2008)은 시간, 장소의 융통성과 상호작용 및 학습 참여의 증가부분이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혜정 등(2007)은 칭찬 피드백이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박성익 등(2007)에 따르면, 효과적 온라인 학습에 학습자 요인(학습시간, 장소선택,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효과적 오프라인 학습에 교수자 요인(학문적 열성, 내용 전문성,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김민정, 김혜원(2006)은 내적 동기, 동료 학습자의 반응, 교수자의 동료 학습자로서의 참여가 효과적 온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 하였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 2 외국어 학습 환경에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문학작품과 영자신문기사를 학습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읽기 토론 수업에 블렌디드 러닝 기법을 활용한 후 수업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가 영어교육에서 갖는 의미를 도출해 내었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S여대 어학원의 강좌 중 읽기 및 토론(Reading and Topic Discussion) 과목을 수강하는 두 학급의 여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반편성교사를 통해 초급 단계에 해당하는 동질집단으로 통제반, 실험반을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실험반 7명, 통제반 8명 모두 각기 다른 학과 여대생으로 이루어졌다. 학급의 규모가 10명 이하인 이유는 교과목의 성격상 읽기를 바탕으로 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의견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설계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실험반은 1학년 1명, 3학년 3명, 4학년 3명으로 구성되었다. 통제반은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4학년 1명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교수자가 동일하며, 연구자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어학원에서 12년째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및 토론 등 여러 강의를 해오고 있었으며 다양한 전공과 학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전반적인 영어 능숙도 및 관심사와 필요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문학작품과 더불어 학습자의 관심사를 잘 반영하는 신문기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두 반의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동일한 학습 순서와 내용이 같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3. 연구 설계

1) 연구 기간과 내용조사

본 실험 연구는 2009년에 “읽기 및 토론”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12주 수업 기간 중 6주(10월 25일~12월 4일) 동안

실시되었다. 실험은 일주일에 2차 시씩 매 차 시 마다 75분씩 진행되었다. 실험반은 월/수 10:30~11:45시간에, 통제반은 월/수 12:00~1:15시간에 실험연구가 진행되었다. 실험반은 읽기 전 활동으로 토론 질문에 대해 학생들 자신의 생각을 웹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통제반은 읽기 전 활동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토론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친필로 영작을 해 오도록 하였다. 주제 선정은 실험, 통제 집단 똑같이 정했다

토론활동을 위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현대영어판 문학작품 중 William Shakespeare의 ‘*Merchant of Venice*’(Pearson Education, 2008)와 인터넷상의 영자신문기사(중앙일보 혹은 코리아헤럴드 등) 읽기 학습 자료로 사용하였다. 문학작품은 학기 시작 전 교사 회의를 통해서 선정되었으며 모든 초급 단계의 읽기/토론 수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문학작품을 통해 학습자들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며, 작품에서 도출될 수 있는 특정 주제를 두고 심층 토론을 하였다. 영자신문의 경우, 학기초반에 학생들과의 생각 짜내기(brainstorming)를 통해 주제를 정하거나, 혹은 연구자의 판단아래 문학작품과 연관성이 있거나 여대생의 흥미를 반영할 수 있는 기사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표 1에는 주제별 토론 질문의 예를 제시하였다.

표 1
주제별 토론 질문의 예

주제	토론 질문의 예
1. Porcia on mercy	Have you been merciful to others? Discuss merciful acts. What made Porcia forgive Shylock at the end?
2. Fashion awareness	Why Koreans are obsessed with designer labels? What is today's trend? What do you think about 'fast-fashion'?
3. Cellular taboos	Tell me differences in cell phone usage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What is proper use of cell phone in public places?
4. Everyday lies	Talk about lies that people tell most often. What are white lies serving good purposes?
5. Gender gap	Do you see any difference between the way women are treated today and the way they were treated when you were younger?
6. Driving in Seoul	How do you think driving in Korea compared to driving to other countries?
7. Dieting	Are you worried about your weight? Why or why not? Is it easy for you to stay fit?

웹 게시판 토론을 위해 <http://www.readingtd.ning.com> 사이트를 구축했으며,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문 사이트의 게시판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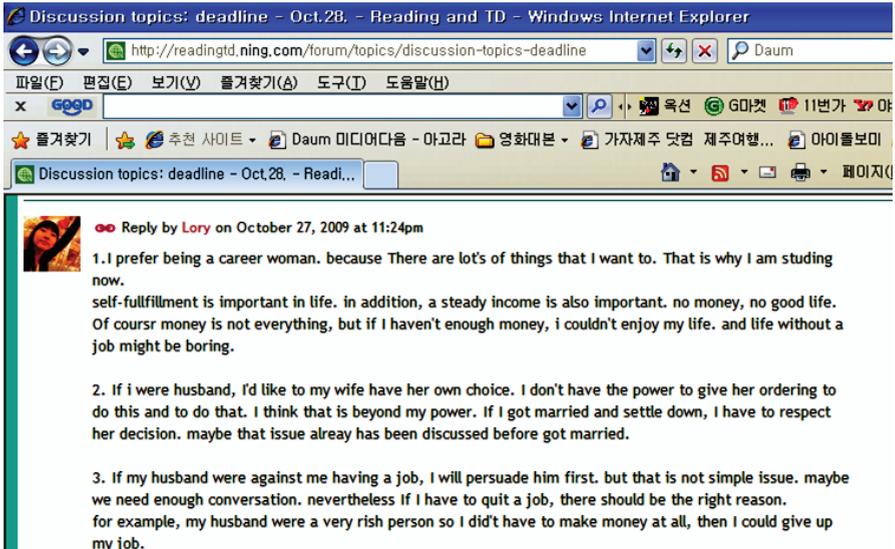


그림 1. 웹 사이트 www.readingtd.ning.com.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됨으로 영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문 사이트를 만들었다. 사이트는 게시판(forum)과 채팅 방(chat)을 포함하고 있으며, 게시판은 댓글을 순차적으로 달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매주 1~2 번 게시판에 올려진 토론 질문들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토론 질문들은 문학작품과 기사를 토대로 주제에 따라 3~8개 정도 교수자가 제공했으며, 댓글은 개인별 편차를 보였다.

2) 수업 절차

그림 2와 같이 본 연구자는 정동빈, 강시경(2008)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모형을 참조하여 블렌디드 러닝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읽기 전 활동으로 웹 게시판 토론 환경을 제공한 반면, 정동빈, 강시경(2008)의 연구에서는 쓰기 심화활동으로 웹 게시판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 본인의 연구는 수업 전에 토론 질문을 웹 게시판에 제시하고, 학습자간 활발한 댓글 달기 활동을 통해 동기 유발과 배경지식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반면, 정동빈, 강시경(2008)의 연구는 방과후 쓰기 심화학습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웹 게시판에 올린 초고를 읽고 서로가 댓글을 달아주는 활동을 마련하였다. 두 연구 모두에서 통제반은 친필로 영작을 해오는 과제가 주어졌다.

접근법(Approach)		구성주의(Constructivism)	
방법(Method)		실험반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학습 협동학습
		통제반	면대면 방식의 학습
절차(Procedure)와 기법(Technique)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실험반	통제반
읽기 전 활동	동기 유발 배경지식/ 경험 활성화	[Step 1] 웹 게시판에 제시된 토론질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기 [Step 2] 타 학생의 글 읽고 댓글 달기 타인의 글에 대해 논의하기 [Step 3] 교수의 웹 게시판 댓글 달기	교사가 이전수업시간에 제공한 토론 질문에 대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친필로 영작을 한 후, 면대면 수업에 임하기
읽기 중 활동	어휘/구문 익히기 내용 파악 토론	[Step 1] 읽기 자료를 교실에서 다 같이 읽으며,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20 분 동안 익힌다. [Step 2] 등장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며, 내용의 이해를 위해 소그룹 토론 혹은 질의-응답 시간을 20~25 분 정도 갖는다. [Step 3] 교사가 읽기 전 활동으로 제시한 토론 질문들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논하는 시간을 20~25 분 정도 갖는다. 이때 교사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심각한 문법적 오류나 잘못된 단어의 선택을 할 경우에만 개입한다.	
읽기 후 활동	정리 예고	수업 시간 동안 나눈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5 분). 다음 차 시에 대해 예고한다.	

그림 2. 웹 게시판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교수 학습 모형.

본 연구의 실험반의 웹 기반 토론활동을 이용하는 블렌디드 러닝은 이론적 기저를 구성주의에 두고 있으며, 협동학습을 제안하고 있다. 수업은 읽기 전 단계, 읽기 중 단계, 읽기 후 단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읽기 자료는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대략 1차 시 분량이 다섯 페이지 정도이며, 신문 기사는 A4 용지 두 면 이내의 분량이었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문학작품이나 신문기사와 연관된 토론 질문을 실험반은 웹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통제반은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기 한 차 시 전 면대면 수업시간에 교수자가 직접 제공하였다. 그런 다음, 실험반은 면대면 수업에 임하기 하루 전까지 웹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과제를, 그리고 통제반은 면대면 수업시간까지 자신의 생각을 친필로 영작을 해오는 과제를 각각 주었다. 웹 게시판을 활용한 협력학습에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보상체계를 설정하거나 웹 게시판 토론 참여도를 점수화하는 방안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Dennen, 2005),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실험반 학생들의 온라인토론 참여도를 평가기준(20%)에 넣었으며, 적어도 상대방 학생의 글을 최소 두 편 읽고, 댓글을 달도록 설정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참여를 조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학생들의 글에 항상 댓글을 남겼다. 그리고 통제반은 친필로 영작을 해온 과제를 숙제점수(20%)에 반영하였다.

읽기 중 단계는 면대면 수업의 시작을 의미하며, 실험반, 통제반 모두 읽기 자료를 교실에서 다 같이 읽으면서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20 여분 동안 익혔다. 그런 다음, 읽기 자료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그룹 토론 혹은 질의-응답 시간을 20~25분 정도 가지게 하였다. 문학작품의 경우, 등장인물과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했는지를 따지면서 주제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문학작품을 다룰 경우에 2-3명씩 짝을 지어 소그룹으로 토론을 하고, 결과물을 교사가 마련한 ‘Reading and Discussion Note’에 정리하였다. 노트는 세 부분- 등장인물과 인물의 성격들을 묘사한 내용을 적는 칸, 주요 사건 및 줄거리 요약 칸, 그리고 모르는 단어 표현 등을 정리하는 칸- 으로 나누어져 있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빈 칸들을 채워나갔다. 교사는 각 그룹을 돌아다니면서 토론에 같이 참여하였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힌트를 제시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신문 기사를 다룰 때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 사건의 원인과 해결책을 주로 모색하였다.

그런 다음, 실험반, 통제반 모두 교사가 읽기 전 활동으로 제시한 토론 질문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논하는 시간을 20~25 분간 가졌다. 논제에 따라 토론 질문의 개수는 최소 3개에서 최대 8개 정도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 “If you were pregnant, would you pursue your career or quit your job?” 혹은 “If your husband were against your having a job, what would you do?”와 같이 여대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서면 혹은 게시판 토론을 거쳐 정리해본 생각들을 면대면 수업 중 교사와 그리고 동료 학생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다시 가졌다. 이때 교사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심각한 문법적 오류나 잘못된 단어의 선택을 할 경우에만 개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읽기 후 단계에서는 토론 도중 나온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5분 정도 가졌다. 그런 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면서 수업 마무리를 지었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과 목표에 따라 읽기와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며, 읽기와 말하기 성취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검사는 반편성고사의 결과를, 사후 검사는 기말 고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반편성고사는 읽기(문법 포함), 듣기, 말하기, 쓰기 네 가지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50 점씩 배점하였다.

읽기와 듣기 시험은 토익과 토플 유형의 문제들이 혼재된 형태로 총 70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70 만점을 나중에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점수에 반영하였다.

말하기 시험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어민 강사 한 명과 내국인 강사 한 명과의 두 번에 걸친 인터뷰 점수를 바탕으로 평균 점수를 반영하였다. 말하기 시험은 총 7항목으로, 시제 관련 문제(현재, 과거, 미래, 완료)뿐만 아니라, 진행형, 가정법 및 비판적 사고를 요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10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최고 점수는 70점이며, 두 평가자의 인터뷰 점수를 합산한 뒤 평균 점수를 내고, 이를 다시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점수에 반영하였다.

쓰기 시험은 주어진 논제에 대해 30분 동안 학생들로 하여금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쓰기는 세 가지 항목- 정확성, 일관성, 어휘-으로 나누어 채점이 이루어졌다. 정확성은 문법적 오류 혹은 맞춤법 오류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며, 일관성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일관성 있고 짜임새 있게 전개시켜 나가는지를 보며, 그리고 어휘는 문맥에 맞는 적절한 표현의 사용 유무에 따라 점수가 매겨졌다.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최고 점수는 30점이며, 이를 다시 50점 만점으로 환산 반영하였다.

사후 검사로 읽기 성취도 검사를 5주 동안의 실험이 끝나는 시점에, 그리고, 6 주 동안의 실험이 끝난 시점에 말하기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읽기 성취도 검사는 학습자가 문학작품과 기사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고안하였으며, 단답형 21문항과 서술형 6문항, 어휘 10문항은 각 1점씩 배점하고, 추론 5문항은 난이도에 따라 2~3점 배점하였다.

사후 검사로 말하기 성취도는 학생의 토론 전개 능력을 평가하며 읽기와 마찬가지로 50점 만점이다. 평가 채점표는 어학원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며, 읽기토론 수업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사, 동료 학생, 학생 본인이 평가에 임하였으며, 비중은 교사 50%, 동료 학생 30%, 그리고 자기 평가 20%로 두었다.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토론 과정 평가 채점표를 제시한 것이다.

말하기 검사를 위해 학생들은 먼저 주제를 정하고, 주제와 연관된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다음, 기사를 바탕으로 토론 질문을 만들고, 질문들을 바탕으로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20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가도록 시켰다.

표 2
토론 과정 평가 채점표

Circle one number only.	
1. Preparation	Did I think about the topic and prepare thoroughly before the class? 1 2 3 4 5 6 7 8 9 10
2. Content	Did I prepare interesting content and thought provoking questions? 1 2 3 4 5 6 7 8 9 10
3. Delivery	Did I deliver the content in a smooth and confident manner? 1 2 3 4 5 6 7 8 9 10
4. Participation	Did I encourage all class members to participate fully & equally? 1 2 3 4 5 6 7 8 9 10
5. Aides	Were the discussion aids that I used useful in starting or furthering the discussion? 1 2 3 4 5 6 7 8 9 10
Comments:	

평가의 채점 방식은 준비(preparation), 내용(content), 전달방식(delivery), 다른 학생의 참여도(participation), 보충 자료의 사용(aids)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어학원에서 말하기 수업이 따로 마련되어있으므로, 정확성과 유창성에 초점을 두는 말하기 수업과 차별성을 강조하여, 읽기/토론 수업에서는 읽기 자료의 이해와 토론 전개 능력에 더 비중을 두어 평가 하고 있다. 준비는 토론을 이끈 학생이 얼마나 토론 주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를 했는지를 나타내며, 내용은 토론 질문들이 단순한 사실들의 열거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는지를 의미한다. 전달방식은 토론 과정을 얼마나 자신감 있게 그리고 매끄럽게 이끌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 보충 자료의 사용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활용된 그림, 사진 등 기타 핸드아웃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SPSS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의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인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웹 게시판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이 읽기 및 말하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집단 별 읽기, 말하기에 대한 능력 향상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t검증을 하기 전 분산이 동일한지 살펴보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즉 읽기, 말하기 영역 모두에서 $p>.05$ 로 등분산이 가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t값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3
읽기 말하기 영역의 Levene의 등분산 검정

	Levene 통계량(F 값)	유의확률
읽기	.081	.781
말하기	1.691	.216

1. 읽기 능력 향상도

웹 게시판을 통한 블렌디드 러닝을 수행하기 전 실험반과 통제반별 읽기 능력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4와 같이 t-검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실험반 M=23.19점, 통제반 M=22.89점으로 실험반의 읽기능력 점수가 통제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성이 성립됨을 가정 할 수 있다.

표 4
블렌디드 러닝 활용 전 집단 간 읽기 능력에 대한 동질성 검사(사전)

집단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반	7	23.19	4.23	0.148	0.885
통제반	8	22.89	3.59		

표 5와 같이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 후 실험반과 통제반별 읽기능력의 향상도를 알아본 결과, 실험반에서는 M=40.29점, 통제반 M=40.13점으로 실험반의 평균점수가 통제반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읽기 능력 향상도는 블렌디드 러닝 활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블렌디드 러닝 활용 후 집단 간 읽기 능력 향상도 비교(사후)

집단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반	7	40.29	7.78	0.033	0.974
통제반	8	40.13	10.52		

웹 게시판을 통한 블렌디드 러닝을 수행하기 전, 후의 실험반과 통제반별 읽기능력의 향상도를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이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에서 읽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험반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을 수행하기 전 $M=23.19$ 점에서 수행 후 $M=40.29$ 점으로 17.10점이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t=-5.108, p<.001$). 하지만 블렌디드 러닝을 수행하지 않은 통제반에서도 실험 전 $M=22.89$ 점에서 오프라인 수업만 진행 후 $M=40.13$ 점으로 17.24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386, p<.01$).

표 6

집단 내 블렌디드 러닝 활용 유무에 따른 읽기 향상도 차이

집단	학생 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실험반	7	사전	23.19	4.23	-5.108***	0.000
		사후	40.29	7.78		
통제반	8	사전	22.89	3.59	-4.386**	0.001
		사후	40.13	10.52		

** $p<.01$, *** $p<.001$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반 내에서의 웹 게시판을 통한 블렌디드 러닝을 수행한 후 읽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 집단에서 실시한 오프라인 수업 또한 읽기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읽기능력 향상에 블렌디드 러닝 활용의 영향력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두 그룹 모두에서 읽기 성취도가 향상된 부분에 관해서는 실험에 사용된 읽기 교재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 읽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말하기 능력 향상도

웹 게시판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활용으로 말하기 능력의 향상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실험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별 말하기능력의 동질성을 알아본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블렌디드 러닝 활용 전 집단 간 말하기능력에 대한 동질성 검사(사전)

집단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반	7	16.74	3.05	-1.447	0.172
통제반	8	20.26	5.75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험집단 M=16.74점, 통제집단 M=20.26점으로 통제 집단의 말하기 능력 점수가 실험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성이 성립됨을 가정 할 수 있다.

표 8과 같이 블렌디드 러닝 활용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말하기능력의 향상도를 알아본 결과, 실험반에서는 M=39.97점, 통제반 M=36.25점으로 실험반의 평균점수가 통제반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89$, $p<.05$). 다시 말해 웹 게시판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은 말하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블렌디드 러닝 활용 후 집단 간 말하기능력의 향상도 비교(사후)

집단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반	7	39.97	3.39	2.189*	0.047
통제반	8	36.25	3.20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기 전, 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말하기능력의 향상도를 알아본 결과 표 9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읽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험반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을 수행하기 전 M=16.74점에서 M=39.97점으로 23.23점이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t=-13.492$, $p<.001$). 또한 블렌디드 러닝을 수행하지 않은 통제반에서도 실험 전 M=20.26점에서 오프라인 수업만 진행 후 M=36.25점으로 15.99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6.874$, $p<.001$).

표 9

집단 내 블렌디드 러닝 활용 유무에 따른 말하기 향상도 차이

집단	학생 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실험반	7	사전	16.74	3.05	-13.492***	.000
		사후	39.97	3.39		
통제반	8	사전	20.26	5.75	-6.874***	.000
		사후	36.25	3.20		

*** $p<.001$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수업만 받은 학생의 경우에도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웹 게시판을

통한 블렌디드 러닝 활용을 한 실험반 내에서의 말하기 능력이 더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블렌디드 러닝 활용이 학습자의 말하기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블렌디드 러닝 학습이 면대면 교수 학습보다 말하기 능력향상에 더 효과적인 이유는 읽기 전 활동으로 주어진 웹 게시판 상의 토론활동이 단순한 게시판 글 올리기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유 목적적이고 의미 깊은 탐구활동으로 이어져 능동적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학습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Batardière와 Jeanneau(2005)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웹 게시판을 이용하여 불어권 원어민과 불어를 수강하는 아일랜드 대학생들에게 불어로 서로의 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과제를 부여한 결과, 아일랜드 대학생들의 불어능력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들 연구의 대상자와 과제의 내용은 본 연구와 다르지만 웹 게시판을 이용한 토론중심 학습으로 진행되었는데, 합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두 연구의 참여자들은 본인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설득시키기 위해 목표 언어를 더 많이 사용했으며 그 결과 말하기 능력이 신장되었다. 목표 언어의 진정한 사용은 이번 연구에 참여한 실험반 학생들을 면대면 토론시간에 더욱더 토론활동에 몰입시켰으며, L2 학습과정에 전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런 전적인 참여가 실험반의 말하기 능력 향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웹 게시판 토론활동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이번 연구의 질적 연구 분석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3. 실험반 학생들의 반응 분석

이제까지 문학작품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반응 연구는 문학작품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반응을 탐구하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작품에 대해 축어적, 제한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연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소수의 연구가 사례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나(김영천, 조재식, 2004), 아직 블렌디드 러닝을 문학작품과 영자신문을 바탕으로 한 영어 읽기 토론 수업에 적용한 사례가 없다. 본 연구자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설계를 위한 단초를 학생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질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실험반 학생들은, Creswell(2007)이 제안한 바대로, 연령 차이가 크지 않고(20~23살), 모두 초급 단계의 여대생으로 이루어진 동질 집단으로, 연령, 성별, 영어능력의 차이가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 분석 자료는 집단 인터뷰 내용, 이메일 내용 그리고 웹 게시판을 통해 참여자들이 나눈 토론 내용들이다. 본 연구과정에서 S여대의 어학원 수업 규정상 한국

어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연구를 위해 번역작업을 거쳤다. 인터뷰는 마지막 수업이 끝난 직후,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난 6주 동안의 수업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서로의 경험담과 생각을 듣고자 반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인터뷰 질문지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질문의 의도에 빗나가는 대답이 나와도 학생들의 내면에 묻어두었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까지 드러낼 수 있도록 그대로 수용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해주었다.

이번 질적 연구의 타당도(validity)를 높이기 위하여, Creswell(2007)이 제안한 바대로, 이메일을 통한 참여자의 확인을 거침으로써 증거자료에 대하여 연구자가 내린 해석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결과,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크게 네 가지—(1) 학습 자료, (2) CMC 도구, (3) 토론 질문, (4) 영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학습 자료로 사용한 문학작품과 영문기사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익명성을 위해 영어애칭의 첫 글자만 사용하고자 한다.

[학생 S]: 문학작품을 소재로 토론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베니스의 상인을 읽으면서 여자의 질투심이나 우리가 특정 인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도 좋았어요. (머뭇거림) 하지만 시사(영문기사)가 문학작품보다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문학작품은 결말이 뻔 하잖아요. 그리고 작품에 나온 구어체라든지아무튼 셰익스피어 시대에 나오는 영어표현은 현재 잘 안 쓰이니깐 덜 실용적인데요. 시사는 실용적이잖아요.

[학생 J]: 저는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주제들 중에서 ‘성차별’ 이나 ‘직장 맘’이 제일 흥미롭고 토론도 진지하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대생이라 그런지 여자와 관련된 이슈들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깐 미리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학생 A]: 신문 기사는 저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일으켜 줘서 구매욕을 자제하는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영어로 제 생각을 표현하는데 버겁기는 해도 신문기사를 읽고 토론하는 게 저에게는 문학작품보다 더 재미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 EFL 교재와는 달리, 문학작품과 영문기사는 폭넓은 주제를 다룰 수 있어 흥미롭고 색다르게 느껴졌으며, 이로 인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고 하였다. 특히, 문학작품보다는 영문기사에 더욱 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본인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비동시성 CMC 도구인 웹 게시판을 동시성 CMC(메신저나 채팅 방)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S]: 글썸..... 실시간 이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을 바로 못해서 아마도 답 글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단어를 몰라서요.

[학생 J]: 저희는 시작했다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메모장을 띄워 놓고 생각나면 또 쓰곤 해요. 적어도 토론 질문에 답을 다는데 한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온라인사전도 뒤지고..... 관련 있는 다른 기사들도 검색해 보게 되요.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게시판에 올리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연구참가자들이 비동시성 CMC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토론 질문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민하며,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온라인 사전의 도움을 빌어 영어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Thomas와 MacGregor(2005)와 일치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CMC 도구가 상이하였으며, 특히 깊은 성찰을 요하는 과제에 비동시성 CMC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토론 질문은 주제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질문에 대해 답하기 보다는 각기 다른 질문들에 대해 논하였더라면 더욱더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 A]: 토론 질문의 내용들이 대체로 주제와 연관성이 깊었어요. 그리고 제 개인의 경험과도 연관을 쉽게 지을 수 있어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학생 S]: 모두가 같은 질문들에 대해 토론 하다 보니, 상대방의 글을 읽고 서로 댓글을 달아 줄 때 제가 했던 말들을 또 다시 되풀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미 내 의견을 올렸는데 또 다시 올리는 것도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중복이 되지만 올렸거든요. 중복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생 C]: 가령 주제 하나에 토론 질문을 학생 수만큼 마련해 놓고, 한 사람이 한 질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그

답변에 활발히 글을 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면대면)수업에 와서 특정 질문에 대해 서로가 더 깊게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질문의 내용은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학생들은 인식했으나, 모두가 똑 같은 질문을 놓고 웹 게시판에서 토론을 하는 활동은 웹 게시판의 비 동시적 성격 때문에 본인이 주장한 바를 매 댓글마다 반복해서 언급해야 하는, 의도하지 않은 불편함을 야기시켰다. 웹 게시판 상에서의 활발한 의견 교류를 위해 다양한 토론 질문을 마련해 놓고 각각의 학생들이 특정 질문에만 답하도록 한 다음, 댓글을 달도록 토론활동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말하기 능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학생 J]: 저는 말하기가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수업에 오면은 할 말이 없어요. 문법도 헛갈리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해요. 요즘에는 먼저 (웹 게시판에) 제 생각을 써보고, 얘기를 하니깐 단어도 계속 생각나고..... 아무튼 얘기 하는 게 한결 수월해 졌어요.

[학생 O]: 저는 말하는 게 늘었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서 쓰고, 그걸 다시 말하니깐 표현력이 늘어요.

[학생 S]: 제 경우에는 실제 (면대면)수업시간에 와서 말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제 생각을 교사가 묻지 않으면 밝히려고 하지 않았는데 요즘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에게 제 생각을 을 설득시키고 싶어요.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Thomas와 MacGregor(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비동시성 CMC인 웹 게시판이 충분한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토론 질문에 대해 성찰을 하도록 도왔으며, 인터넷 사전이나 기타 인터넷 자료 검색이 용이하여 토론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였으며, 이는 면대면 토론 수업에 까지 이어져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웹 게시판 토론활동이 EFL학습자의 말하기능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읽기 전 단계의 토론활동이 대학생의

읽기와 말하기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웹 게시판 토론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대상을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구성하여 설정한 연구목적 및 연구 질문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 성취도 면에서는 웹 게시판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읽기 전 토론활동을 수행한 실험반과 면대면으로 학습한 통제반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말하기 성취도 검사에서 두 집단간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웹 게시판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은 말하기 성취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질적 연구를 통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문학작품 보다는 실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영문기사를, 동시성 CMC보다는 비동시성 CMC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토론 질문은 동일한 질문보다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올리고 토론하는 방식이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웹 게시판 토론활동은 말하기 능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학습자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의의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급단계의 소규모 학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6주라는 단기간 실험처치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능력 향상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웹 게시판 토론활동이 효과적인 읽기 말하기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교수자는 게시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개별 학생의 글을 읽었다는 징표로 간략한 댓글만을 다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Thomas와 MacGregor(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웹 게시판 토론활동이 토론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 면대면 토론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져 말하기능력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웹 게시판과의 블렌디드 러닝 설계로 능동적인 말하기 교수·학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발견하였으나,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 검증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부설기관인 어학원의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모든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필요와 교육환경에 맞게 교수자들이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읽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문법, 어휘, 쓰기능력 성취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증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6 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장기적으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인 실험을 제안한다. 셋째, 여대생의 흥미를 반영할 만한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수업을 이끌었으므로 다양한 일반

신문기사를 사용한 것보다 활용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신문기사의 종류와 학습자의 성별을 달리하여 적용한 후 그에 따른 성취도 검사를 하면 심도 깊은 결과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김지영(2007)과 박성익 등(2007)도 지적했듯이,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는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유도하는 교수자의 역량이다. 본 연구에서 웹 게시판 토론활동이 학생의 자율에 맡겨졌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연구에서 교수자의 상호작용 참여 정도를 달리하여 교수자의 역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웹 게시판을 활용한 읽기 전 온라인 토론활동이 학습자의 말하기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표 학습자의 특성과 욕구, 흥미 파악을 통해 교수-학습 목표에 적합한 수업설계를 한다면 효과적인 읽기 토론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시경, 정동빈. (2009). 영문학개론강좌에서 문자메시지 활용한 의사소통 교수-학습 방안 적용연구. *영어영문학연구*, 35(2), 225-248.
- 김동일, 이해정, 손지영. (2005).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Blended e-Learning 체제 정착 방안 연구: S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6(4), 97-123.
- 김민정, 김혜원. (2006). 웹 기반 비동기적 게시판 이용 학습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탐색.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4), 235-261.
- 김소은. (2009). *어린이 영자신문을 활용한 소집단 협동학습활동이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영천, 조재식. (2004). *교과교육과 수업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문음사.
- 김지영. (2007). 웹 게시판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연구. *영어어문교육*, 13(3), 227-251.
- 김지원. (2006).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학습방법. *영어어문교육*, 12(3), 167-186.
- 민예구. (2001). *어린이 영자신문을 활용한 초등 영어 읽기 지도: 지도 효과 및 활용 방안*.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박정일. (2003). 영어/번역 어떻게 가르칠까?: 영어/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탈이론적 방법론 서설. *번역학연구*, 4(1), 5-26.

- 박성익, 이상은, 송지은. (2007). 블렌디드 러닝에서 효과적 온/오프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 강좌를 중심으로. *열린 교육 연구*, 5(1), 17-45.
- 박은숙. (2008). 블렌디드 러닝 학습모형개발: R2D2와 학습양식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4(4), 85-110.
- 방영주. (2006). 교사-학생간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효과. *영어어문교육*, 12(3), 187-210.
- 양윤혜. (2008). 어린이 영자신문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이 초등영어 읽기 능력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이명관. (2006). 웹을 활용한 영어 읽기수업이 대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7(1), 161-181.
- 이병천. (2004). 비 실시간 CMC 협동학습이 초등학생의 영어문장 이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7(2), 293-314.
- 이영민. (2006). 혼합 학습 (Blended learning) 환경에서 프로젝트 학습법 실천 사례.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1(1), 129-145.
- 이혜정, 이성혜. (2007).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블렌디드 이러닝 활성화 방안: 블렌디드 이러닝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으로부터 (연구보고 2006-03).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이혜정, 홍영일, 손지영. (2007). Blended e-Learning 환경에서 학생 간 온라인 피드백 유형이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3), 131-157.
- 임미경. (2009). 인터넷 영자신문 수업을 통한 중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 향상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임병빈, 박지민, 강문구. (2009). CALL 기반 영어수업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영어학습 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10(1), 224-250.
- 정동빈, 강시경. (2008).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초등 영어 쓰기 교수-학습효과. *언어연구*, 23(4), 577-599.
- 정동빈, 김혜경. (2009).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한 읽기 전 후 토론활동이 대학생의 독해학습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10(1), 251-283.
- 조숙, 정동빈. (2008). 유형별 CMC 활용 과제 학습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미어문학*, 26(1), 215-240.
- 조숙, 정동빈. (2009). 대학생의 영어 학습에서 다면적 CMC 활용의 교육효과. *교육공학연구*, 25(2), 47-83.
- 차은실. (2006). 영자신문 활동 유형이 영어 읽기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한중임. (2003). 영어 교육에서의 효과적인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도구 활용 방안.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6(2), 243-264.
- Bañados, E. (2006). A blended-learning pedagogical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EFL successfully through an online interactive multimedia environment. *Calico Journal*, 23(3), 533-550.
- Batardière, M. T., & Jeanneau, C. (2005). Comme tu l'as dit": How an online Internet Classroom Assistant (ICA) conferencing forum can challenge and transform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Retrieved January 10,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leonardo-lets.net/ict/common/download/CatherineJeanneau and Bathadiere.pdf>
- Beatty, K. (2003). *Teaching and researching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London: Pearson Education.
- Bielawski, L., & Metcalf, D. (2002). *Blended e-learning: Integrating knowledge, performance, support and online learning*. Amherst, MA: HRD Press.
- Bleimann, U. (2004). Atlantis university: A new pedagogical approach beyond e-learning. *Campus-Wide Information Systems*, 21(5), 191-195.
- Collison, G., Elbaum, B., Haavind, S., & Tinker, R. (2000). *Facilitating online learning: Effective strategies for moderators*. Madison, WI: Atwood.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ndon: Sage.
- Dennen, V. P. (2005). From message posting to learning dialogues: Factors affecting learner participation in asynchronous discussion. *Distance Education*, 26(1), 127-148.
- Driscoll, M. (2002). Blended learning. *e-Learning*, 3(3), 54-56.
- Graham, C. R. (2006). Blended learning systems: Definition,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C. J. Bonk & C. R. Graham (Eds.), *The handbook of blended learning: Global perspectives, local designs* (pp. 3-21). San Francisco, CA: Pfeiffer.
- Graham, C. R., Allen, S., & Ure, D. (2003). *Blended learning environ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Unpublished manuscript, Provo, UT.
- Gülbahar, Y. & Madran, R. O. (2009).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Satisfaction, Equity, and Autonomy in 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A case from Turkey. Retrieved January 16,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irrodl.org/index.php/irrodl/article/viewPDFInterstitial/600/1231>.
- Lee, K. K. C., & Chong, M. P. M. (2008). Blended learning: A case study for Japanese language studies. Retrieved January 15,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

- www.springerlink.com/index/x43m36w38741834h.pdf.
- Lim, D. H., Morris, M. L., & Kupritz., V. W. (2007, July). *Online vs. blended learning: Differences in instructional outcomes and learner 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Academy of Human Resource Depart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University of Tennessee, TN.
- Long, K. (1997). Using English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The Journal of Humanities, 4*, 107-116.
- McDonald, J. (2003). Assessing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Process and product. *Computers & Education, 40*, 377-391.
- Payne, J. S., & Ross, B. M. (2005). Synchronous CMC, working memory, and L2 oral proficiency development.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9*(3), 35-54.
- Pena-Shaff, J. B., & Nichollas, C. (2004). Analyzing student interactions and meaning construction in computer bulletin board discussions. *Computers & Education, 42*(3), 243-265.
- Rosenberg, M. J. (2001). *E-learning: Strategies for delivering knowledge in the digital age*. Columbus, OH: McGraw-Hill.
- Shakespeare, W. (2008). *The merchant of Venice*. Essex: Pearson Longman.
- Singh, H., & Reed, C. (2001). A white paper: Achieving success with blended learning.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 (ASTD)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Centra Software. Retrieved December 15, 2009,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entra.com/download/whitepapers/blendedlearning.pdf>.
- Thomas, W., & MacGregor, S. (2005). Online project-based learning: How collaborative strategies and problem solving processes impact performance. *Journal of Interactive Learning Research, 16*(1), 83-107.
- Thompson G. M. (2003, Fall). *Bridging the gap: Moving toward a blended learning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MMA Fall Educators' Conference,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FL, USA.
- Yamada, M. (2009). The role of social presence in learner-centered communicative language learning using synchronous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xperimental study. *Computers & Education, 52*, 820-833.
- Vygotsky, L. (1987).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부록
읽기 성취도 검사

(Act 1) 1 point for each question.

1. Who is Antonio afraid of and why?
2. Which of these words do not describe Shylock?
greedy Christian kind unforgiving villainous poor
3. Choose the correct answer.
 - 1) The people in the play live in England/France/ Italy.
 - 2) The play is about love and death/ loyalty/ madness.
4. Answer each question with one of these names:
Salerio Solanio Gratiano Bassanio Nerissa Portia Shylock Antonio
 - 1) Who think s that too much money is a bad thing? _____
 - 2) Who is often careless with money? _____
 - 3) Who refuses to eat with Antonio? _____
 - 4) Who criticizes Antonio's attitude to life. _____
 - 5) Who jokes about Antonio's mood? _____
5. Act 1 is called 'The Agreement'. What is the agreement and who makes it?
6.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agreement? Is it a sensible agreement? Why (not)?

(Act 2) 1 point for each question.

7. Finish these sentences, using the words below.
amusing excited foolish happy kind sad sweet worried
 - 1) Lorenzo thinks that Jessica looks _____.
 - 2) Gratiano is _____ about missing the masked party.
 - 3) Solanio and Salerio think that Shylock's situation is _____.
 - 4) Salerio is _____ about news from France.
 - 5) Salerio thinks that Antonio is a _____ man.
 - 6) Antonio was _____ when he said goodbye to Bassanio.
8. Is Jessica right to leave her father without telling him?
9. Who would be a better husband, the prince of Morocco or the Prince of Arragon? Why (not)?
10. Among eight suitors appearing in Merchant of Venice, who would you like to marry?
11. What is your priority in terms of choosing your marital partners?

(Act 3) 1 point for each question.

12. Put these in the order they happen. Number them 1-7.

- 1) Portia gives Bassanio a ring. ____
 - 2) Shylock plans his revenge. ____
 - 3) Portia meets Jessica. ____
 - 4) Bassanio hears bad news. ____
 - 5) Portia and Nerissa leave Belmont. ____
 - 6) Antonio is taken to prison. ____
 - 7) Bassanio leaves Belmont. ____
13. One word in each sentence is wrong. Correct the mistakes.
- 1) Shylock has been taught about revenge by Jews.
 - 2) Shylock wants to punish Lorenzo.
 - 3) Shylock is told that Jessica exchanged his ring for a cat.
 - 4) Portia wants Bassanio to choose the box immediately.
 - 5) Bassanio chooses the lead box because it looks pretty.
 - 6) Anotonio's problems have strengthened him.
 - 7) Portia wants Gratiano to manage her business.
 - 8) Portia sends her servant to Venice to see her cousin.
 - 9) Portia is taken to prison.
 - 10) Portia gives Bassanio a bracelet.

(Act 4, 5)

14. Which do you think is Shylock more upset about: the disappearance of his daughter or of his jewels and money? (2 points)
15. What problems will there be when Bassanio and Portia meet? (2 points)
16. How will Jessica feel when she hears what happened to her father? (3 points)
17. Imagine the conversation between Jessica and her father. (3 points)
 18. This play is a comedy. Did you expect this ending? If you could make a new ending, what changes would you make? (3 points)

안미리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언어과학과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72-1

Tel: 02) 820-6544

E-mail: miriahn@hotmail.com

정동빈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언어과학과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72-1

Tel: 02) 820-6544

E-mail: dbjeong@cau.ac.kr

Received 27 September 2010

Reviewed 13 November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6 December, 2010